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2014

7·8

www.ucac.or.kr

중국 광저우발레단

The Butterfly Lovers



2014. 8. 23(토) 오후 8시 |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중국 3대 발레단 중 하나인 광저우발레단의 이번 내한공연을 통하여 세계적으로도 수준높은 중국의 발레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1부에서는 클래식발레 하이라이트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친숙한 작품들과 2부에서는 광저우발레단의 대표 창작작품인 "The Butterfly Lovers"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관람을 위한 입장료는 R석 30,000원, S석 20,000원이며, 회관 유료회원 30%, 10인 이상 단체 20% 할인 등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문화예술회관 누리집(홈페이지)(www.ucac.or.kr)을 참고하거나 공연과(☎226-8233 기획공연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C o n t e n t s



04

기획전시

- _ 초청기획전시 「빛의 현대 예술전」
- _ 「올해의 작가 개인전·2014」
- 하반기 합동전

기획공연

- _ 광저우 발레단 공연
- _ 모닝콘서트 7월
- _ 모닝콘서트 8월



14

시립예술단 공연

- _ 시립교향악단 제175회 정기연주회
- _ 시립합창단 제89회 정기공연
- 오라토리오 『엘리아』
- _ 시립교향악단 제176회 정기연주회
- 『아를의 여인』
- _ 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야외공연
- _ 시립무용단 기획공연
- 『우리소리 판타지』



29

예술을 말하다

- _ 예술축제를 찾아서
- _ 리하르트 슈트라우스(4)
- _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 _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공연·전시가이드

- _ 7·8월의 공연·전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년 7 · 8월호

통권 176호

발행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
T. 052)227-3884 <http://www.uc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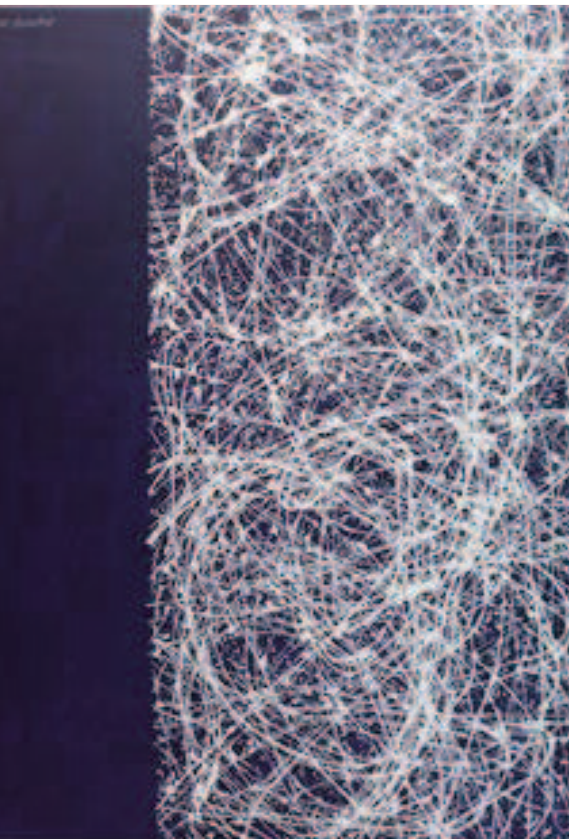
발행인 이형조

편집인 안종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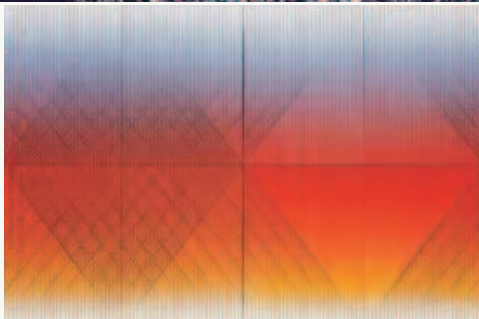
기획 · 편집 박용하 · 이미경

편집 박용하, 시미정, 권혁민, 김내영

디자인 · 제작 필리아 T. 052)272-3679



천공 2014-5 (오경환 作)



Light 02-32 Yang (하동철 作)



무한 반복 (오상욱 作)

초청기획전시

『빛의 현대 예술전』

문화예술회관은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현대미술작품들을 한층 심화시켜 주제 중심의 초청기획 전시로 『빛의 현대 예술전』이 제1전시장에서 25일간 열린다.

오경환, 하동철, 우제길 등 유명 원로화가에서부터 현대미술의 대중화에 앞장서 온 한젤마, 해외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 오상욱, 강용면 등 세대를 아우르고 평면, 영상, 설치미술까지 총 12명의 작가구성으로 50여점의 풍성한 현대미술작품들의 향연이 펼쳐질 것이다.

국내 굴지의 산업도시 울산에서 과학적인 기술을 통한 예술의 융합으로 현대미술의 예술적 가치가 더욱 돋보이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울산시민들의 미래문화가 예술과 산업이 융화된 풍요로운 삶으로 승화하는 길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전시는 기계를 이용한 빛의 발산으로 환상의 신비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자연의 바람과 열 등으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핑(morphing)작업과 모빌(mobile)작품, 그리고 관람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재구성되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 작품 등을 포함한다.

‘빛과 예술의 만남’을 주제로 3공간을 나누어 자연의 빛, 조형의 빛 그리고 재생의 빛을 선보일 예정이다.

제1전시공간에서는 자연의 빛, 자연의 색으로 만들어낸 현대미술작가들의 전시공간이다. 작가들은 국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오경환, 하동철, 우제길 작가들로서 울산의 자연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색채여정을 현대미술의 평면회화로 다양한 형



Amor Fati <한기창 作>



스타 <한젼마 作>



Light Wave <최문석 作>

식과 패턴 그리고 해체적 조형이미지를 동원하여 보여 준다.

제2전시공간에서는 조형의 빛, 예술과 과학기술의 결합, 진화된 현대미술공간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뒤섞인 초월적공간의 확산적 작품을 주도적으로 추구해온 심영철, 오상욱, 노해울, 최문석작가가 진화된 현대 미술의 빛을 여는 감각지능의 여정을 담아냈다.

제3전시공간에서는 재생의 빛, 예술과 재생의 결합, 융합된 현대 미술로서 리사이클링(recycling)작품이 전시된다. 작가들은 강용면, 강인구, 진시영, 한기창, 한젼마작가가 빛의 현대예술로 재생의 조합과 산업의 순환의 생명을 불어넣는 작품들이 신비적으로 다가선다. 오늘날 현대미술은 유구한 세월동안 무한 확장을 거쳐 예측 불허하는 다양한 소재와 표현방법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즐거움을 주고 있다. 예술과 과학은 과거부터 상호보완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될 것이다.

이에 연계하여 일반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작품 관람해설」도 함께 전시기간 동안 운영하여 현대미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밀접한 관계를 있음을 알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관람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번 전시는 울산이 국내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 부상되어 동시대문화의 위상을 리드하는 창조적인 예술적 가치가 한층 돋보이는 양적, 질적인 예술성이 돋보이는 전시라 하겠다.

Performance Guide

2014. 7. 17(목) ~ 8. 10(일)
25일간

—

제1전시장
한국 현대미술
작가 12명의
평면, 영상, 설치작품
총 50점 전시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4」 7월 하반기 합동전



바다 갈매기 (10월 이귀동 작)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역작가 예술창작지원을 위해 상설전시 공간 “갤러리 씬”에서 추진하는 2014년도「올해의 작가 개인전」하반기 작가들의 합동전이 7월 한 달간 전시한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실력 있는 작가들에게 창작활동의 동기 부여와 울산사랑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올해의 작가 개인전」의 취지에 따라 전년도 미술 평면회화 분야에 한정했던 것을 사진, 서예 장르까지 확대 모집하여 상반기 합동전시와 릴레이 개인전으로 일반 시민 및 지역 작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총 5명의 참여 작가들로 7월 하반기 합동전시에 이어 8월에 김재옥(한문), 9월에 고동희(서양화), 10월에 이귀동(사진), 11월에 한진숙(문인화) 그리고 12월에 박성란(한국화) 작가가 릴레이 형식으로 개인전이 개최 된다.

하반기 개인전을 주제별로 보면, 8월의 작가 김재옥은 한글, 한문 자작시 등을 작가 자신의 고향인 울산에 관련된 글들을 지필묵의 전통방법으로 작품화하여 보여줌으로서 울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9월의 작가 고동희는 한국의 전통문양들을 독특하고 색다른 기법과 현대적인 표현방법으로 작품을 재구성하여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아 전통 계승에 대한 관심과 국수적인 마음들을 엿볼 수 있다.

10월의 작가 이귀동은 꿈과 희망, 슬픔 그리고 절망을 같이하는 바다의 다양한 모습과 오늘날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기도 하는 다양한 사진작품들을 선보인다.

11월의 작가 한진숙은 매향을 염색 천에 가득담은 한국화 작품을 선보여 삭막하고 획일화된 고층건물의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매화의 향기로 힐링 할 수 있는 장이 마련해 준다. 12월의 작가 박성란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무한 생산과 소비, 현대인들의 욕망을 비롯한 집착까지 창조된 결과물로 보고 기계의 재생산되는 순환의 과정을 인간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부족한 전시공간을 해소하고 지역의 유망작가들을 발굴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 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올해의 작가 개인전」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을 배출하는 장으로 확산되어 나아가고 울산 전시에술발전에 밑거름이 마련되는 전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지역 작가들의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울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한다.

Performance Guide

2014. 7. 1(화) ~ 7. 30(월), 30일간

갤러리 씬

김재옥, 고동희, 이귀동, 한진숙, 박성란

중국 광저우발레단

The Butterfly Lovers

세 계 적 수 준 의 광 저 우 발 레 단 의
클 래 식 하 이 라 이 트 와 창 작 품

중국 3대 발레단 중 하나인 광저우발레단의 이번 내
한공연을 통하여 세계적으로도 수준높은 중국의 발
레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1부에서는 클래식발레 하이라이트 공연으로 관객
들에게 친숙한 작품들과 2부에서는 광저우발레단
의 대표 창작작품인 "The Butterfly Lovers"을 선
보일 예정이다.





광저우발레단 소개

광저우발레단은 1994년 창단, 현재는 중국의 무용스타 출신의 张丹丹(장단단) 단장의 지휘아래 풍부한 스타일의 고품격 클래식 발레공연 제작에 주력해 왔다. 대작 17편과 70편 이상의 소규모 작품을 공연한 바 있고, 국제대회에서 38회 수상(금상 9회)의 영광을 안았으며, 국내 대회에서는 156회 수상(금상 20회)했다. 작품 <풍설야귀인>은 원화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그 외 다수의 시상식에서 입상한 바 있다. 러시아,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독일을 비롯한 세계 20개국에서 공연하며 유럽과 미국의 주류 예술계에서 일약 화제가 되었으며,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광저우발레단 예술감독

张丹丹(장단단) 광저우발레단 단장/예술감독

- 발레리나 겸 중국 최고의 연기자(국무원 및 정부 제공 특별수당 대우 받고있음)
- 문화관광부 주최, 최고 공연상 수상
- 국무원 주최, 아웃스탠딩 액터 어워드 / 희극 매화상 수상 등
- 중국의 실력 있고 청렴한 100인 예술가 시상식, 메리트 어워드 수상 등 다수
- 미국 인명연구소 선정, '21세기를 빛낸 유명여성' 등재
- 세계 인명사전 등재 등 이력 다수.

Program

제1부 - 클래식 발레 하이라이트

- 파키타
스페인을 배경으로 프랑스 장교와 집시 처녀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작품
- 그랑파 클래식
그소브스키가 파리 상제리제 극장에서 안무한 발레소품으로
정통 고전발레의 우아하고 귀족적 분위기의 작품
- 지젤 2막 중그랑 파드듀
낭만주의 발레의 대표작 '지젤' 중두 사람의 비극적 사랑이
표현된 2인무

Intermission

제2부 - 광저우발레단 창작 대표작

- The Butterfly lovers
광저우발레단의 창작 대표작,
중국 고전 양산백과 축영대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그린 작품



Performance Guide

2014. 8. 23(토)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 10인이상 20% 할인)
초등학생이상 입장가

세계음악기행 다섯번째 이야기

2014 모닝콘서트 시즌 8

탱고탱고 아르헨티나

주부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울산문화예술회관의 상설기획공연인 11시 모닝콘서트가 세계음악기행 시리즈 그 다섯 번째 순서로 오는 7월 22일 오전 11시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거리 7월 9일 거리. 아르헨티나의 독립과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장 폭 140m의 이 거리만큼 뜨거운 7월에 탱고를 듣는 것은 아주 특별하다.





- 01 Bass 황정규
- 02 Drums 정승원
- 03 Accordion 정태호
- 04 Piano 박기영



라벤타나

라벤타나는 아코디언 연주자 정태호를 중심으로 2006년 결성된 4인조 탱고밴드이다. 2008년 데뷔 앨범 "Como el Tango, Como el Jazz"를 발표하고, 2010년 두 번째 앨범 "Nostalgia and The Delicate Woman"을 내놓았던 이들은 한국대중음악상을 두 차례나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 수많은 공연장, 라이브 클럽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EBS "Space 공감", MBC "김창완의 음악여행 라라라", KBS "낭독의 발견", MBC 라디오 "배철수 음악캠프", KBS "라이브 음악창고"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라벤타나는 "클럽 에반스 데이" (2008), "한강 클럽 페스티벌 NEXT Floor 08" (2008), "제6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2009), LIG 아트홀 "인디 콘서트" (2010), "그린 플러그드 페스티벌" (2010) 등 다수 페스티벌 무대와 수많은 초청공연 그리고 단독공연 등에서 화려한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강렬하고 매혹적이면서도 우수에 찬 탱고!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탱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카를로스 가르텔, 아스토르 피아졸라 등 전설적인 탱고 작곡가들의 대표곡들을 연주한다. 2013년 여름 무르익을대로 무르익은 최고의 완성도를 보여준 3집 음반 'Orquesta Ventana'를 선보이고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매진을 기록하는 등 더욱 주목 받는 한국 최고의 탱고 밴드 라벤타나를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본다.

공연 관람을 위한 입장료는 전석 7,000원이며, 회관 유료회원 30%, 10인 이상 단체 20% 할인 등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문화예술회관 누리집(홈페이지)(www.ucac.or.kr)을 참고하거나 공연과(☎226-8233 기획공연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오는 8월 26일 여섯 번째 세계음악기행은 "아름다운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편이 준비된다.

Performance Guide

2014. 7. 22(화)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전석 7,000원(회관회원 30%할인, 단체 10인 이상 20% 할인)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

세계음악기행 여섯번째 이야기

2014 모닝콘서트 시즌 9

아름다운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

주부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울산문화예술회관의 상설기획공연인 11시 모닝콘서트가 세계음악기행 시리즈 그 여섯 번째 순서로 오는 8월 26일 오전 11시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음악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있는 “빈(Vien)”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트라우스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성들을 배출한 도시로도 유명하다. 오스트리아로 떠나는 음악기행은 지난 6월모닝콘서트에 출연했던 KBS클래식오딧세이의 음악코디네이터로 활약한 칼럼니스트 “류태형”씨가 해설을 맡고 연주는 Trio Son Pur(송쥬르)가 출연한다. 관객들이 음악가와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연주감상을 도와준다.

01



02



03



01 서민정 바이올린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전문사,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졸업, 동아콩쿨, 중앙콩쿨, 부산콩쿨 1위 및 상위입상, 독일 이프라 니만 국제콩쿨 1위, 윤이상 국제콩쿨 입상, KBS, 수원시향, 부천필하모닉, 코리아심포니, 울산시향, 전주시향, 원주시향, 포항시향 등 국내 오케스트라 협연다수, 체코 필하모닉, 비엔나 심포니 챔버, 마인츠 심포니, 샌다이 필하모닉, 오사카 간사이 오케스트라 등 해외오케스트라 협연다수
예술의전당 주최 교향악축제 협연, 실내악축제, 11시 콘서트, 청소년음악회 협연 및 초청연주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예술의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 출강
에라토 앙상블 멤버

02 이상경 Cello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고, 토론토 왕립음악원 예비학교, 미국 줄리아드 음대 학사, 예일대학교 음대에서 석사학위, 재학 중 알도 파리소상 비루트 예일 음대 동문회상, 일본 쿠사츠 음악 페스티벌 음악 감독상 수상, 2003년 워싱턴 국제콩쿨 1등, 특별상, 캐나다 연방콩쿨 1등, Woolsey Hall콩쿨, 토론토 대학콩쿨 등에서 우승, 프랑스 Douai Geroge Prete국제콩쿨, Irving M.Klein 국제콩쿨, 줄리아드콩쿨 등 상위 입상, 제 3회 서울 국제 음악 페스티벌 코리아 심포니와 협연, 서울심포니, 대전시향, Yale Philharmonia, Tuscaloosa Symphony, Manhattan Chamber Orchestra, Duouai Symphony, Cathedral Bluffs Symphony, University of Toronto Symphony 등 국내외 오케스트라와 협연 하였다. 금호 문화재단 초청 독주회(금요 콘서트), 세라믹팔래스를 초청 독주회 및 대전예술의전당 초청 연주회, 뉴욕 링컨센터, Merkin Recital홀, 카네기홀, UN본부, 워싱턴 케네디센터(Terrace Theater), 파리 Salle Gaveau, 런던 Cado-gan홀, 대만 국립극장 연주, 2004-2005 대전 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활동, 미국 세종 솔로이스츠 멤버
현재 :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 부룩 음대 박사 과정, 한양대학교 실내악 강의교수 및 충남 대학교에 출강, 화음첼보케스트라 멤버로 활동

03 이혜진 Piano

독일 폴크방 국립음대 (Folkwang Hochschule Essen) Diplom(석사과정), Konzertexamen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코리아심포니, 대전시향과의 협연, 독일 Bürger meisterhaus 독주회, 뒤셀도르프 Bach Sall 독주회, 세차레의 Neue Aula 독주회, 98년 귀국 독주회, 99년 금호 금요스페셜 콘서트 시리즈 독주회, 2001년 부암아트홀 초청 독주회와 대전시민회관 독주회를 비롯해 독일 Benefiz Konzert, Georgian 대사관 초청연주, 다수의 금호 현악사중주단과의 연주와 첼리스트 조영창과 전국 4개도시 순회연주, 대구 현대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삼성 리움미술관, 금호미술관, 독일문화원, 박창수 하우스콘서트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연주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후기낭만 러시아 작품을 주제로 한 네델란드 Maastricht Piano Festival에서 연주, 2003년 미국 워싱턴주의 Meathow Chamber Music Festival에 초청, 다국적 멤버들과 2주간에 걸친 실내악 공연, 일본과 미국에서의 수차례 공연, 2008년 6월,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초청 "모차르트 교향악 전곡 시리즈"에서 협연, 2009대전 실내악축제에 초청, 2010년 부산 쇼팽프로젝트시리즈 쇼팽 협주곡협연
현재 :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와의 음반활동

Performance Guide

2014. 8. 26(토)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7,000원(회관회원 30%할인, 단체 10인이상 20% 할인)
초등학생이상 입장가



해설 류태형

-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 월간 객석 편집장
- KBS FM '출발 퀴즈'의 음악 칼럼니스트
- 네이버 [오늘의 클래식] 필자
- KBS 1TV [클래식 오디세이] 음악 코디네이터

Program

-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왈츠 모음'
- 슈베르트
피아노 트리오 2번
'2악장'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 모차르트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변주곡'
- 크라이슬러
'사랑의 기쁨'

※ 상기 목록은 공연 순서대로가 아니며
여기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01



02

울산시립교향악단 제175회 정기연주회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작곡가 음악

마에스트로 김홍재 지휘자가 피아니스트 피터 오브차로프와 함께 거센 “랩소디 인 블루” (Gershwin / "Rhapsody in Blue") 피아노 협주곡으로 클래식 진수를 보여준다. 서정적이고 매력 있는 멜로디와 미국의 통속적인 리듬이 인간의 감각을 기반으로 한 재즈의 순수한 예술작품을 만나게 될 것이다.

피터 오브차로프 피아노

피아니스트 피터 오브차로프는 국립 레닌그라드 콘서바토리 영재음악원을 졸업하였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국립 음대에서 수많은 유럽 후원 상 및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섬세한 표현력과 감성을 겸비한 그는 우크라이나 Vladimir Krainev or 콩쿠르, 체코 Concertino Praha 뿐 아니라 러시아 Virtuosen 2000 등 여러 콩쿠르에서 수차례 입상하였고 1997년에 열린 제 3회 영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은메달을 따는 영광을 얻었다. 1999년에는 러시아 주요방송국 NTV 주최 신년음악회에서 Yuri Bashmet, Gidon Kremer, Mstislav Rostropowitsch 등과 초청연주를 하였으며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지에서 모차르트 해 기념 초청연주를 가지는 등 아시아 외 러시아와 유럽 각국에서 초청연주를 가졌으며, St. Petersburg Philharmonie, Mozarteum Orchester Salzburg, Radio Symphonieorchester Wien, Brucknerorchester Linz, Magdeburger Philharmonie, Philharmonie Augsburg, Munchner Bachsolisten(Mitglieder der Munchner Philharmoniker), Orchestre Royal de Chambre de Wallonie 등의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2004년 라흐마니노프 연습곡 전곡 녹음과 2006년 58개의 쇼팽 마주르카 전곡을 녹음한 그는 현재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양성에 열정을 쏟고 있다.

곡/목/소/개

코플랜드 “애팔래치아의 봄”

Copland / "Appalachian Spring"

이 작품은 미국의 현대 무용의 권위자인 마사 그라함과 코플랜드의 합작인데, 코플랜드는 1945년에 이 작품으로써 풀리처 상과 뉴욕 음악 평론가 상을 받았다. 애팔래치아라 하는 것은 미국의 동부 대성양 연안에 있는 산맥의 이름이다. 이 같은 이름의 발레를 연주회용으로 편곡하여 모음곡으로 만든 것이다. 줄거리는 19세기 초엽, 개척 시대의 애팔래치아 산지에 봄이 왔다. 그 중턱에 새로 지은 농가에서는 결혼식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 노래하며 춤을 춘다. 신랑과 신부는 이 같은 새 살림에 희망과 불안한 빛마저 보인다. 나이 많은 노인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말하면서 두 사람의 앞날을 격려하며 축복을 하는 것이다. 손님들이 다 가버린 후 신랑 신부는 앞으로 힘차고 강하게 세상을 살아갈 것을 다짐한 다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세계의 봄이고 끝없는 희망의 봄이기도 하며 인생의 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 1곡 아주 느리게 A장조 4/4박자. 느린템포에 주요 인물이 소개된다. 제2곡 알레그로 A장조 4/4 박자. 빠르고 쾌속 한 템포이며 종교적인 기분이 난다. 제3곡 모데라토 Bb장조3/4박자. 보통 속도로 신랑 신부의 2중창이 벌어진다. 제4곡 빠르게 B장조 4/4박자. 조금 빠른 템포인데 신앙의 전도자와 그 신도들의 무용이 유니즌으로 전개된다. 제5곡 더욱 느리게 A장조 4/4박

01 예술감독 겸 지휘자 김홍재

02 피아노 피터 오브차로프

자. 놀라움과 두려움을 나타낸 신부의 솔로 댄스. 어머니로써의 예감 등으로 클라이맥스에 이른다. 제6곡 몰토 모데라토 E 장조4/4 박자, 조용하고 느린 정서의 무드가 조성된다. 제7곡 모데라토 Ab 장조2/4 박자. 역시 조용한 서정이 감도는데, 신랑 신부의 일상생활의 장면이다. 여기서는 케이커 교도의 찬미가에 의해 5개의 변주곡으로 되어있다. 제8곡 코다. 신부는 이웃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 마지막에 신랑 신부만이 남게되며 음악은 조용하다.

거쉰 “랩소디 인 블루”

Gershwin / "Rhapsody in Blue"

거쉰은 이 작품으로서 미국의 악단에 데뷔 했는데 그 때 나이가 26세였다. 이 심포닉 재즈는 당시 재즈왕인 화이트먼의 악단을 위해 쓴 것이다. 재즈의 작곡 기교를 써서 피아노 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댄스 음악 밖에 더 쓰지 못하던 그가 재즈의 수법으로 순 예술적인 작품을 작곡한 것이다.

이 곡은 처음에 나오는 클라리넷이 사이렌처럼 점차로 올라가는 음을 내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놀라운 효과였다. 서정적이고 매력 있는 멜로디와 미국의 통속적인 리듬이 융합되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모해 나간다. 여기서 블루(Blue)란 말은 동굴과 같은 어두움과 도회지의 우울한 면을 표현한 것이다. 근대 기계 문명의 불안감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감각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라 하겠다.

번스타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中 “교향적 무곡”

Bernstein / "Symphonic Dances" From West side Story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전설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은 작곡에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 와 줄리엣”을 A. 로렌츠가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대본을 완성하고 현대 무용의 거장이었던 제롬 로빈스가 연출하여 1957년 9월에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된 이 작품은 당시 무려 734회 공연의 장기 흥행 기록을 세운 대성공작으로 기록 되었으며 현재 까지도 전세계에서 상연될 정도로 사랑받는 명작이다.

뮤지컬과 영화 모두 스토리나 작품 전반적인 모든 면이 뛰어나지만 특히 화려한 색채감과 치솟는 듯한 아름다운 선율을 작곡한 번스타인의 천재성과 열정이 아니었으면 이 위대한 작품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Program

- Copland "Appalachian Spring"
- Gershwin "Rhapsody in Blue"

휴식

- Bernstein
"Symphonic Dances" From
West side Story

Performance Guide

2014. 7. 18(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지휘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연 피터 오브차로프(피아노)



울산시립합창단 제89회 정기공연

오라토리오 『엘리야』

지휘 구 천

소프라노 김방술

알토 양송미

테너 변진환

베이스 김동섭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야’는 오라토리오의 3대 걸작으로 꼽힌다. 독일 작곡가 멘델스존의 작품 중 가장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서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 엘리야의 생애와 사건들을 소재로 마치 한 편의 오페라를 보는 듯한 매우 극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합창 작품이다. 총 43곡으로 구성됐으며, 1부와 2부 두 부분으로 이뤄져 독창과 이중창, 삼중창, 사중창, 합창 등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구 천 예술감독 겸 지휘자의 마지막 연주회로 장식할 대규모 합창 작품인 제89회 정기연주회 ‘엘리야’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이 반주를 맡고 성악가 4명과 국립합창단이 협연한다.

국립합창단



울산시립교향악단



Performance Guide

2014. 7. 11(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석 5,000원(회원 30%, 단체 20% 할인적용)

지휘 구 천 연합합창 국립합창단 반주 울산시립교향악단
협연 소프라노/김방술, 알토/양송미, 테너/변진환, 베이스/김동섭

Part I

Introduction: As God the Lord of Israel liveth (Elijah) - Overture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세하나니 - 서곡

1. Help, Lord! (chorus)
- 도우소서 주여
2. Lord! bow thine ear to our prayer! (chorus, soprano, alto)
- 주여 우리기도 들어주소서
3. Ye people, rend your hearts (Obadiah)
-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
4. If with all your hearts (Obadiah)
- 참 맘으로 나를 찾으면
5. Yet doth the Lord see it not (chorus)
- 하느님이 보지 않으셨다.
6. Elijah! get thee hence (Angel I)
- 엘리야 너는 여기를 떠나라
7. For he shall give his angels (quartet)
- 주 하느님의 천사들 너를 따르고
- 7A. Now Cherith's brook is dried up (Angel I)
- 시냇물이 말랐도다
8. What have I to do with thee? (Widow, Elijah)
-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있소
9. Blessed are the men who fear him (chorus)
- 주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 As God the Lord of Sabaoth liveth (Elijah, Ahab, chorus)
- 살아계신 하느님앞에 나는 섰노라
11. Baal, we cry to thee; hear and answer us! (chorus)
- 바알신이며 응답하소서
12. Call him louder, for he is a god! (Elijah, chorus)
- 더 크게 부르라
13. Call him louder! he heareth not! (Elijah, chorus)
- 더욱 크게 부르짖으라
14. Lord God of Abraham, Isaac and Israel! (Elijah)
-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느님
15. Cast thy burden upon the Lord (quartet)
-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16. O thou, who makest thine angels spirits (Elijah, chorus)
- 생명을 만드신 주여
17. Is not his word like a fire? (Elijah)
- 주의 말씀은 불같지 않더냐
18. Woe unto them who forsake him! (alto)
- 하느님 버리는 자는 고통을 받으리라
19. O man of God, help thy people! (Obadiah, chorus, Youth)
- 하느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백성을 도우소서
- 19A. O Lord, thou hast overthrown thine enemies (Elijah, chorus)
- 오 하느님 이제는 적들이 멸망하였으니
20. Thanks be to God (chorus)
- 하느님께 감사하라

Part II

21. Hear ye, Israel (soprano)
- 들으라 이스라엘아
22. Be not afraid, saith God the Lord (chorus)
- 두려 말라 말하신 주
23. The Lord hath exalted thee (Elijah, Queen, chorus)
-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사
24. Woe to him, he shall perish (chorus)
- 그를 죽이라
25. Man of God, now let my words be precious (Obadiah, Elijah)
- 하나님의 사람이여
26. It is enough; Lord take my life (Elijah)
- 만족합니다
27. See, now he sleepeth (tenor)
- 보라 그가 자고 있다
28. Lift thine eyes, lift thine eyes (chorus)
- 네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29. He, watching over Israel, slumbers not (chorus)
-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켜 주리라
30. Arise, Elijah, for thou hast a long journey (Angel I, Elijah)
- 일어나라 엘리야
31. O rest in the Lord (Angel I)
- 주 안에 쉬라
32. He that shall endure to the end, shall be saved (chorus)
- 끝까지 잘 견디는 자
33. Night falleth round me, Lord! (Elijah, Angel II)
- 주여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34. Behold! God the Lord passeth by! (chorus)
-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35. Above him stood the Seraphim (alto); Holy is God the Lord (chorus)
- 스랍들이 높은 곳에서
36. I go on my way (Elijah)
- 이제 돌아 가거라
37. For the mountains shall depart (Elijah)
- 높은 산이 평탄케 되고
38. Then did Elijah the prophet break forth (chorus)
- 선지자 엘리야 불같이 솟아나고
39. Then shall the righteous shine forth (tenor)
- 이 땅에 정의 나타나서
40. Behold, God hath sent Elijah (soprano)
-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다
41. But the Lord, from the north hath raised one (chorus)
- 천사들이 해 돋는 곳에서
42. O come everyone that thirsteth (quartet)
- 목마른자는 모두 오라
43. And then shall your light break forth (chorus)
- 그리고 너희의 빛이 솟아오르리라



울 산 시 립 교 향 악 단

특별기획 야외공연

품격 높은 연주회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립교향악단이
울산대공원을 찾는다.

한 여름밤 80여명의 단원들이 뿜어내는 클래식 선율 서희태
지휘자와 함께 더위를 쫓는 풍성한 음악회를 마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01 서희태 객원지휘

지휘자 서희태는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 과 헝가리 부다페스트, 독일 뮌헨, 러시아 모스크바, 그리고 이탈리아 밀라노 등지에서 성악과 오케스트라 지휘를 공부했다. 유학 시절에는 빈 국립오페라극장의 단원을 역임하였고, 그 외 많은 공연장과 오케스트라에서 수많은 경력을 쌓았다.

귀국 후에는 서라벌대학 음악과 전임교수와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를 역임했고, MBC 미니시리즈 ‘베토벤 바이러스’의 예술감독을 비롯하여 EBS ‘세계테마기행’, tvN ‘오페라스타’, SBS 스타킹 ‘기적의 목청킹’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여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면서 전문 연주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대한민국 CEO를 위한 클래식 아트 경영 - 클래식 경영 콘서트”를 저술하여 출판하면서 클래식을 경영과 리더십에 접목한 명강연으로 SERICEO,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표준협회 등 수많은 CEO들의 모임과 기업에서 강연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부터 한국능률협회(KMA)에서는 “클래식 아트경영 - 클래식에서 경영의 신세계를 찾다”라는 최고경영자과정의 리딩멘토로 전체과정을 이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김연아선수가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사용했던 “오마주투코리아”의 음악 “아리랑”을 직접 지휘하는 등 한국음악의 세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명예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01



Program

1부 | Bizet Opera <Carmen> Highlight 오페라 <카르멘> 하이라이트 45'

- | | |
|--------------|--|
| ■ 오케스트라 | Overture 서곡 |
| ■ 카르멘(메조) | Havanera 하바네라 |
| ■ 카르멘(메조) | Seguidilla 세귀디아 |
| ■ 투우사(바리톤) | Toreador Song 투우사의 노래 |
| ■ 돈 호세(테너) | La fleur que tu m'avais jetée 꽃노래 |
| ■ 미카엘라(소프라노) | Je dis que rien ne m'epouvante 난 이제 두렵지 않네 |
| ■ 오케스트라 | Intermezzo 간주곡 |
| ■ 카르멘 & 돈 호세 | C'est toi! C'est moi! 당신이요! 나요! |

2부 | 놀라운 콘서트 45'

- | | |
|--------------------|---|
| ■ Dvorak | Slavonic Dance Op.46 No.8 슬라브무곡 8번 4' |
| ■ Screen Music | 20th Fox Opening 20세기 폭스사 오프닝 15' |
| | Cinema Paradiso 시네마천국 주제가 |
| | My heart will go on 타이타닉 주제가 |
| | Jazz Suite No.2 Waltz 왈츠 (Shostakovich) |
| | 아리랑 (또는 Homage to Korea 아리랑) 9' (6') |
| ■ 최성환 | Lippen Schweigen 입술은 침묵하고 |
| ■ 메조 & 바리톤 이중창 4' | (Operette 'Die lustige Witwe' 중) |
| ■ Lehar | |
| ■ 소프라노 & 테너 이중창 4' | |
| ■ Bernstein | Tonight 투나잇 (Musical 'West side Story' 중) |
| ■ Bernstein | Mambo (Musical 'West side Story' 중) 3' |
| ■ Johann Strauss I | Radezky March 라데츠키 행진곡 4' |

Performance Guide

2014. 8. 22.(금) 오후 8시
울산대공원야외공연장
지휘 서희태(객원)

울 산 시 립 교 향 악 단 제 176 회 정 기 연 주 회

“아를의 여인”

프랑스의 문호 도데(Dauelet 1840~1897)의 희극 “아를의 여인” 모음곡이 울산시립교향악단을 만난다.

정기연주회로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화려한 테크닉과 음악성을 지닌 바이올리스트 조가현의 협연으로 클래식
진수를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것입니다.



토마 / 레이몬드 서곡

A. Thomas / Raymond Overture샤를 토마(Charles Louis Ambroise Thomas, 1811~1896)는 프랑스의 오페라 작곡가로 오페라와 오페레타에 뛰어난 작품들이 많으며 특히 〈미농Mignon〉과 〈햄릿Hamlet〉 등이 유명하다 토마의 초기 오페라 [레이몬드]는 1851년 파리의 코미크 오페라 극장에서 상영되었고, 오페라 [레이몬드]의 일부는 현대 프랑스 레파토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서곡은 연주곡으로 유명하다.

바이올린 협주곡

비제 아를의 여인 모음곡 | Bizet "L'arlésienne- Suite"

비제는 1872년 프랑스의 문호 도데(Daudet 1840 ~ 1897)의 희극(아를의 여인)의 극중 음악으로 전27곡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이 모음곡이다. 이것은 그의 오페라 (카르멘)에서 발췌한 관현악 모음곡과 함께 오케스트라를 사용하여 그의 역량을 발휘한 걸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작품도 처음에는 호평을 받지 못했고 음악회용 모음곡으로 그 중에서 우수한 것만을 선출, 개편한 후부터 크게 호평을 받게 되었다. 이 모음곡은 2개가 있는데 제1모음곡은 전주곡, 메뉴에트(제1), 아다지에도, 카리용(중)이며, 제2모음곡은 목가(파스토랄), 간주곡, 메뉴에트(제2), 파랑돌로 되어 있다. 이 희곡의 줄거리는 남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 있는 아를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이다. 부농의 청년 프레데리크가 이 마을의 아를이란 여인을 열렬히 사랑하는데 집 사람들은 그 여자의 과거가 불순하다고 해서 이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목장지기 미티피오라고 하는 자가 찾아와

“아를은 나의 연인이다” 하면서 그와의 결혼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근처에 사는 비베트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프레데리크의 집에 때때로 찾아왔는데 그녀는 요즈음 그를 사모하고 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결혼하기에 이르렀는데 결혼하기 전날 밤에 그는 춤추는 아를의 여인을 본 후, 다시 마음이 쏠리어 이를 단념할 길이 없어 번민하고 있다. 그러난 그는 그녀와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을 알고서 곡물 창고에 있는 높은 창문에서 뛰어 내려 그만 자살하고 만다는 내용이다.

제1모음곡

1. 전주곡(Prelude) 알레그로 c 단조 4/4박자.
2. 메뉴에트(Meunet)(제1) 알레그로 조코소 c 단조3/4박자.
3. 아다지에도(Adagietto) 아다지오 F장조3/4박자.
4. 카리용(Carillon) 알레그레토 모데라토 E장조 3/4박자.

제2모음곡

1. 목가(Pastorale) 원작에서는 원곡의 제1단이 제2막의 개막 전에 연주되는 안단테 소스 테누토 아사이 A장조 4/4박자.
2. 간주곡(Intermezzo) 알레글 모데라토 마콘 모토 Eb 장조 4/4 박자.
3. 메뉴에트(Meunet) (제2) 안단티노 과시 알레그레토 Eb 장조 3/4박자.
4. 파랑돌 (Farandol) 알레그로데치조 d 단조 4/4박자.

Performance Guide

2014. 8. 29.(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지휘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연 조가현(바이올린)

01



02



- 01 예술감독 겸 지휘자 김홍재
- 02 바이올린 조가현

Program

- 토마 /레이몬드 서곡
Thomas | Raymond Overture
- 바이올린 협주곡
- 휴식 (15분)
- 비제 / 아를의 여인
Bizet |
"L'arlésienne- Suite No1, No2"

울산시립무용단 기획공연

우리소리 판타지



국악인 남상일의 재담 넘치는 해설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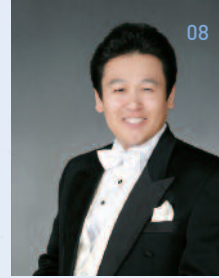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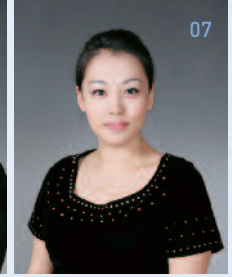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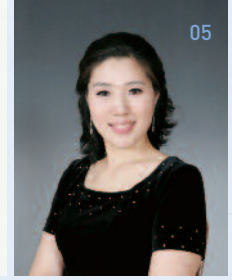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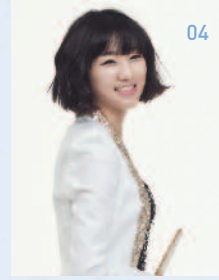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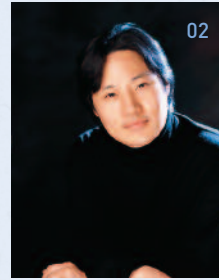
국악관현악, 국악가요, 국악오페라, 판소리, 합창 등
우리 소리의 대향연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악을 전파하는 소리 전도사 남상일의 톡! 톡!
튀는 진행으로 흥겹고 구성진 우리소리 우리가락의 멋과 맛을 느끼고
배워보는 유익한 시간으로 지역에서는 접하기 힘든 국악의 다양한 장르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무대, 신세대 국악인 서진실, 울산시립합창단
그리고 울산시립무용단이 함께 만드는 국악 대잔치!!

Program

지휘/이용탁

- 관현악 서곡 『태산』 임교민 곡
- 디즈 협주곡 『파미르 수상곡』 협연/정은아(소금)
- 국악가요 『적막한 꽃길』 Sop.김수미, Ten.정규현
합창:울산시립합창단
- 국악오페라 청 중 『답아 답아 우지마라』, 『인당수』
심청:김나정(Sop), 도사공:정필운(Ten), 도창:서진실
합창:울산시립합창단
- 해금과 소금 2중주 『공감』 해금/안수련, 소금/문형희
춤:울산시립무용단
- 국악가요 『쑥대머리』, 『신사랑가』 소리/서진실
노래/ 남상일, 서진실
-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박범훈 곡



- 01 김상덕 예술감독 겸 안무자
- 02 이용탁 객원지휘
- 03 남상일 진행
- 04 서진실
- 05 김수미
- 06 정규현
- 07 김나정
- 08 정필운

Performance Guide

2014. 7. 17 (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5,000원(회관회원 30%, 단체 20% 할인)

안무 및 연출 김상덕(예술감독 겸 안무자)

객원지휘 이용탁(前 국립창극단 음악감독)

훈련지도 박정은(지도자) 공연진행(MC) 남상일

특별출연 남상일, 서진실, 안수련, 문형희

울산시립합창단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Part-1 예술을 말하다

예술축제를 찾아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IV)

재미있는 미술사 여행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7·8월의 공연·전시



Speak of Art

대자연과 함께 펼쳐지는 베르겐 축제

노르웨이의 자연을 대표하는 아이콘, 바로 오로라와 피오르입니다. 특히 피오르(빙하로 침식되어 만들어진 계곡에 바닷물이 들어와 형성된 하구)는 세계 7대 자연의 신비로 선정될 만큼 북유럽 여행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그 가운데 송네피오르는 그 길이가 205km, 깊이는 천308m로 세계에서 가장 길고 깊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이 송네피오르를 보기 위해 세계에

서 여행객들이 찾아들죠. 북유럽 직항 편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이면 피오르 관광을 위해 전세기를 운항하는 여행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피오르의 서쪽 관문인 베르겐과 동남쪽에 있는 오슬로는 기차로 꼬박 7시간이 걸리는데요. 보통은 버스와 기차, 페리 등을 이용해 송네피오르를 관광하며 1박2일 일정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베르겐은 피오르뿐만 아니라 연중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문화예술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노르웨이 제2의 도시인 베르겐에서는 수도 오슬로보다 다채롭고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열리거든요.



● 글 윤하정

KBS앵커, TBC 방송기자 등 방송활동과 YES24 공연매거진 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뷰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영국 휴학 중이며 유럽 공연기행을 준비중이다.

그리그의 고향 베르겐

노르웨이에는 두 명의 유명한 '에드바르(Edvard)'가 있습니다. 표현주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와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인데요. 그리그는 1863년 베르겐에서 태어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그는 스코틀랜드 이주민의 자손이고 독일에서 공부했지만, 스칸디나비아의 색채를 고집해 작품 안에 민족 고유의 리듬과 선율을 담으려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누구보다 노르웨이적인 음악을 세상에 알렸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그의 집은 특별히 '트롤드하우겐(Troldhaugen)'으로 불리는데요. 트롤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요정, 그러니까 '요정이 사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그의 키가 152cm, 니나도 유독 키가 작았다고 하는데, 그의 음악을 사랑한 사람들이 그들을 요정이라 불렀을까요? 하지만 트롤드하우겐에 도착하면 그리그 부부가 왜

이곳을 사랑했는지, 사람들이 왜 이곳을 '요정이 사는 언덕'이라고 부르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트램을 타고 20분 정도 이동한 뒤 다시 30분을 걸어 들어가면 꽃들이 만발한 오솔길 끝에 자그마한 이층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몇 발짝을 옮기면 언덕 아래로 푸른빛의 호수가 휘감아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롤드하우겐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세상에 하나뿐인 근사한 공연장입니다. 그리그의 집 주변에는 박물관과 작은 콘서트홀이 조성됐는데, 베르겐의 주요 음악제가 열릴 때면 이 작은 무대에

세계 내로라 할 뮤지션들이 오릅니다. 이럴 때면 베르겐 도심에서 차편까지 마련되기 때문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지요.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트롤드하우겐에는 언제나 방문할 수 있는데요. 한낮의 소박한 콘서트도 즐길 수 있습니다. 2백 석 규모의 작은 콘서트홀은 입구에서 객석을 따라 무대까지 층층이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무대 뒤편에 있는 대형 통유리로 그 옛날 그리그가 바라봤을 널따란 호수가 보입니다.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Bergen

베르겐의 대표 음악제

여름이면 피오르 관광에 각종 문화예술 축제까지 겹쳐서 베르겐에서 숙소잡기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베르겐의 대표 축제는 5월 하순부터 보름 동안 진행되는 <베르겐 페스티벌>입니다. 2014년에는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됐는데요. 오페라에서 클래식 연주회, 댄스, 연극, 서커스, 비주얼 아트 등 100여 편의 공연이 도심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1953년에 시작됐고, 노르웨이를 넘어 북유럽에서 가장 큰 페스티벌로 세계 내로라 할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죠. <베르겐 페스티벌>이 끝나면 <그리그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6월 중순부터 약 10주간 이어집니다. 트롤드하우겐의 공연장에서도 크고 작은 연주회가 열리는데요. 그리그뿐만 아니라 인기 클래식 음악가들의 연주를 유명 연주가, 성악가들의 연주와 노래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잘 맞으면 우리나라에서 만나기 힘든 세계적인 뮤지션들을 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화 도시 베르겐에도 연중 많은 팝 아티스트들이 방문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거리 곳곳에 비운세, 뮤즈, 리하나, 본조비 등의 콘서트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베르겐의 볼거리

항구 주변에는 또 다른 볼거리들이 가득합니다. 세계 어느 항구가 베르겐처럼 변화할까요? 바닷가를 따라 늘어선 수산물시장에는 북유럽 사람들과 관광객이 큰 생선들이 가득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연어 샌드위치와 샐러드는 관광객들의 손에 쏠림 없이 팔려나갑니다. 특히 항구를 걷다 보면 삼각지붕과 형형색색의 몸통을 맞대고 있는 중세풍의 건물들이 눈에 들어올 텐데요. 베르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바로 브뤼겐(Bryggen)입니다. 브뤼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목조 가옥 단지인데요. 13세기 이후 독일 북부 도시들은 북해와 발트해 연안 도시들과 원활한 해상교역을 위해 한자동맹을 맺었는데 브뤼겐은 당시 상인들의 사무실과 집이 모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목조건물인 만큼 여러 번의 화재로 소실됐고, 복원된 지금은 다닥다닥 붙은 레스토랑과 상점, 갤러리, 공방 등이 색다른 맛을 뽐내며 이곳을 메우고 있죠. 베르겐을 한 눈에 보고 싶다면 도시를 감싸고 있는 야트막한 산에 오르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은 등반열차로 이동할 수 있는 플뤼엔(Floyen) 산에 많이 오르는데요. 그다지 높지 않고 등산로가 잘 조성돼 있어서 등반열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3시간 정도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플뤼엔산에 오르면 숲길 사이로 탁 트인 바다, 그 바다를 품은 베르겐의 모습이 들어오는데요. 동네 뒷산을 오른 것 같지만, 북유럽의 서쪽 끝, 과거 바이킹들이 활개를 치던 북해를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다를 거슬러 가면 대서양에 닿는 것이지요.



베르겐 여행을 위한 이것저것

우리나라에서 노르웨이로 바로 가는 항공편은 없습니다. 베르겐으로 가려면 KLM 등의 경우 편을 통해 이동하거나 오슬로에서 야간열차 또는 피오르 관광 상품을 이용해 기차나 버스, 페리로 찾아가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화폐는 크로네(NOK)인데, 1크로네가 약 2백 원 정도입니다. 북유럽 중에서도 노르웨이의 물가는 비싼 편이에요. 세계적인 체인점의 햄버거와 커피 가격을 보자면 우리의 두 배 이상입니다.

각오를 하고 갔는데도 막상 교통비나 음식값을 지불할 때면 손이 떨리게 돼 있죠. 하지만 때문에 움직임에 지나치게 제약이 따른다면 여행 후에는 꼭 후회하게 됩니다. 베르겐에는 숙박시설이 많지 않은 데다 호스텔 등의 저렴한 숙소도 흔치 않아서 여행 전에 미리 숙소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북유럽의 여름은 백야로 밤늦도록 해가 지지 않지만, 한낮에도 서늘할 때가 많고 6월에 눈이 내리기도 해요.

베르겐은 유명 관광도시답게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트램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도심 어디나 쾌적하고요. 무엇보다 국민 대부분이 영어를 자유자재로 쓰는 만큼, 유명 관광지는 물론이고 버스를 타거나 음식을 살 때도 큰 불편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비싼 게 흠이지만, 무더운 여름에 떠나기에는 안성맞춤인 여행지예요!



01



01

01 _ '죽음과 변용' 이 초연될 무렵 아이제나하 전경

02 _ 바이마르 극장

글 송종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가」, 「무용과 비평」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무용과 오페라> 발행인 겸 작가로 활동중이다.

내용 자체는 셰익스피어의 원본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작곡은 등장인물의 심리상태를 중심으로 하였기에 작품 전개가 원작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심리주의 묘사 음악은 그의 일련의 교향시에 계속 등장한다. 주인공 맥베드의 동기는 맥베드의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맥베드의 영웅적인 면모를 나타낼 때는 행진곡풍의 선율, 그의 잔인한 마성을 드러낼 때는 날카로운 선율, 마음 한 편을 차지하는 공포와 고뇌를 나타낼 때는 팀파니와 호른이 이 선율들을 연주한다. 맥베드 부인의 주제는 치밀하고 교활하면 야망에 찬 인간의 날카로움을

독일 후기 낭만파를 대표하는 대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IV)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실제로 단악장 형식의 교향시로서 작곡한 첫 작품은 '맥베드 Macbeth, Op 23(1888/90) 셰익스피어 드라마에 의한 교향시'이다. 슈트라우스는 '돈 주앙' 보다 먼저 '맥베드'를 작곡하였지만 수정을 하느라고 초연은 '돈 주앙'보다 늦은 1890년 10월13일 바이마르에서 슈트라우스 자신의 지휘로 이루어진다.

느끼게 한다. 작품 전체는 도입부에 등장하는 전투적인 팡파레 풍 동기로 통일된다. '맥베드'는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중 가장 연주되지 않는 작품이다. 그의 다른 교향시에 비해 기억 할 만한 음악의 주제들이 길지가 않고 다양하고 흥미롭게 변하는 부분이 부족하여 특별히 청중들에게 각인되지 못하는 면도 있고, 이 후 교향시들이 워낙 뛰어난 작품들이 많은 것도 한 이유로 들 수 있다. 또한 슈트라우스의 특기인 음의 정확한 정리도 이때는 아직 미흡한 시절이었다. '맥베드'는 음악 주제의 변용이라는 점에서 리스트의 영향이 엿보이지만 주제 설정이나 색채적인 관현악법, 전체의 구성 등에서는 슈트라우스의 독창성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다. 슈트라우스 자신도 이 '맥베드'부터는 사실상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슈트라우스의 세 번째 교향시 '죽음과 변용 Tod und Verklärung, Op 24(1888/89)= 죽음과 정화'는 작곡자의 사상과 음악 양식 두 면에서 가일층 발전한 작품이다. 그의 전 작품 중 가장 감동적인 내용을 지녔고, 이 내용을 매우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슈트라우스는 드높은 이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어느 예술가가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을 교향시로 표현해내고자 했다.

작곡자 자신이 구상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희미한 등불이 비치고 있는 허름한 작은 방에 죽음과 싸우다 지친 환자가 잠들어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고요한 방에서 환자의 창백한 얼굴에는 우수로 가득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생명의 집착과 죽음의 힘 사이에 격렬한 투쟁이 지속되다가 그 어느 쪽도 승리는 없고 다시 정적만이 남게 된다. 싸움에 지친 환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성취한 이념이나 이상들이 자신의 상상 속에서 펼쳐진다. 발랄한 소년시절, 청년시절의 대범한 행위들, 성년이 된 다음 왕성한 투쟁까지 이 모두 성숙하고 고귀한 인생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게 된다.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이 세상에서 이를 수 없었던 이상을 영원한 우주 속에서 멋진 형태로 완성하기 위해 영혼은 육체를 떠난다는 죽음에 의한 정화 혹은 변용의 내용을 가지고 슈트라우스는 작곡을 하였다. 슈트라우스는 이 내용을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작품을 구성하고 작곡을 한다. 팀파니의 리듬으로 죽음을 앞둔 환자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환자의 의식이 회복할 즈음에는 하프의 분산화음으로 이를 표현하였다. 오보에, 잉글리쉬호른, 클라리넷이 연주하는 젊은 시절 사랑의 동기, 삶의 집착의 동

기, 현악기군이 연주하는 죽음의 운명의 동기, 병마와 싸우는 는 장면에서의 특별한 리듬의 동기, 플루트와 클라리넷으로 표현하는 창백한 환자의 미소, 죽음과의 투쟁, 변용의 동기 등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음악동기를 통하여 슈트라우스는 괴로움과 사랑스러움, 고뇌와 삶의 환희를 서로 대비시켜 표현한다. 생명을 향한 강한 의지를 죽음 이후 영원한 정화애의 변용으로 바꾸어 미래의 희망을 표현하는 음악을 그려낸다. 여기에는 리스트 교향시들의 이상주의적인 주제인 '어둠에서 광명으로'라는 낭만파적인 사고도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슈트라우스의 뛰어난 관현악법과 대위법 실력으로 수많은 동기와 주요선율들을 작품 전체에 잘 정리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킨다. 교향시 '죽음과 변용'은 임종을 앞둔 환자가 마침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초월하여 구원받는 과정을 표현한 수작이다. 죽음에 임하는 자세에서 죽음이 반드시 절망이나 두려움만은 아니라는 긍정적 변용을 음악적으로 표현하여 슈트라우스의 심리주의적인 음악에서 최고의 결실을 보게 된다. 한 인간의 인생에 대한 성찰이 표현된 이 작품이 25세 청년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통상적으로 표제음악은 원작을 가지고 작곡을 하지만, 이 작품은 작곡자가 먼저 자신이 구상한 내용으로 음악을 작곡한 후 작곡자의 요청으로 알렉산더 리터는 이 내용을 시로 집필하게 된다. 통상적인 표제음악의 순서가 아닌 반대의 과정인데 슈트라우스는 리터가 쓴 시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여 총보의 서두에 첨부한다.

1890년 6월 21일, 아이제나흐 시립극장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네 번째 교향시는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Till Eulenspiegels lustige Streiche, Op 28(1895)'이다. '죽음과 변용'와 같은 심각하고 격렬한 작품의 뒤를 이어 이렇게 재기 넘치는 작품을 작곡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당시 슈트라우스는 1886년 뮌헨 궁정극장 제3지휘자로 취임하였다가 청중과 극장의 보수성에 염증을 느껴 1889년 10월 바이마르 궁정극장으로 자리를 옮겨 '돈 후앙' '맥베드' 등을 초연하였다. 1894년 결혼 직후 다시 뮌헨극장으로 옮기게 된다. 슈트라우스는 1889년 시릴 키스틀러(Cyril Kistler 1848~1907)의 오페라 '오일렌슈피겔'을 관람했을 때 오페라에 흥미를 보여 이 민화를 바탕으로 오페라 대본을 집필하려다가 그만둔 적이 있었다. 이 오페라에서 묘사한 중세 독일의 마을 주민들과 장난꾸러기 틸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고는 여전히 보수적인 분위기인 뮌헨의 환경에 반발하는 자신의 모습과 당시 극장의 분위기가 유사하다고 느껴 다시 이 민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틸 오일렌슈피겔'은 독일 민화에 등장하는 어릿광대이다. 독일민화에 따르면 '틸 오일렌슈피겔'은 1300년 브라운슈바이크 근처 나이트링겐에서 태어난 심술궂은 장난꾸러기이며 게으름뱅이다. 틸은 북부 독일 지방과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 보헤미아와 이탈리아에 걸쳐 방랑 생활을 하다가 1350년 홀슈타인에서 페스트에 전염되어 죽었다. 하지만 전설적인 가공의 인물이라는 설도 강하게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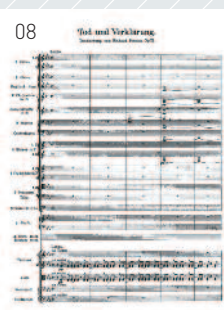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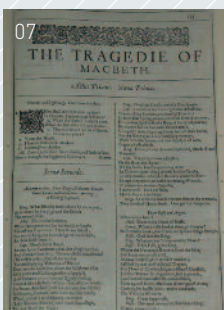


Richard Strauss

03 _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04 _ 알렉산더 리터

05 _ 시릴 키스틀러



06 _ '맥베드' 등장인물들 07 _ '맥베드' 셰익스피어 희곡 초판본 08 _ '죽음과 변용' 악보

09 _ '죽음과 변용'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악보 초판 표지 10 _ 틸 오일렌슈피겔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쇠라의 '그랑드 자트 섬에서의 일요일'

Georges Seurat

주말에 한적한 근교로 소풍이나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는 일은 도시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가활동 중 하나입니다. 계곡이나 호숫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떡을 감고,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구요.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은 너무나 익숙해서 평범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사실은 19세기 후반 대도시에서 시작된 여가 활동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19세기 후반 혼잡하고 역동적인 대도시 시민들의 일상 모습, 혹은 근교에서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그림의 주제로 삼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신인상주의 화가인 조르주 쇠라(Georges Seurat) 또한 이를 다룬 작품을 여럿 제작했습니다. 파리 주변의 한적한 전원 지대는 인기 있는 소풍 장소였고, 여유가 있는 부르주아뿐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 계층도 이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쇠라는 이미 햇빛이 빛나는 교외 센 강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평범한 공장 노동자들의 여가를 주제로 한 <아스니에르에서 떡 감는 사람들>(도판 1)에서 이를 화폭에 담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평범한 이들의 일상을 거대한 캔버스에 정적인 구도로 배치하여, 마치 기념비처럼 웅장한 인상을 주고자 했습니다. 아스니에르(Asnières)는 파리 북서쪽 공장지대에 위치한 교외 지역이었고, 배경에 흐릿하게 표현된 공장의 굴뚝은 당대 급속하게 진행되던 산업화를 암시합니다. 한편 단순한 형태와 규칙적인 형태를 통한 정적인 느낌은 르네상스의 대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작품을 연상시킵니다.

미술사조에서 쇠라는 신인상주의자(Neo-Impressionist)로 구분됩니다. 이는 19세기 프랑스의 미술비평가인 펠릭스 페네옹(Félix Fénéon)이 만든 용어로, 빛과 색채

에 대한 인상주의자들의 관심을 계승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전된 예술운동을 지칭합니다. 인상주의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을 직관적으로 포착하고자 했다면, 쇠라 등의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순간을 영구한 것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쇠라는 당대의 사람들의 본질을 고대 그리스의 프리즈 같은 구성과 조화로운 색채를 통해 영구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당시 새로운 과학이었던 색채 이론에 매혹되었고, 쇠라도 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도판 2). 그를 포함한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점묘법(pointillism)'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색상을 팔레트에서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눈에서 혼합되도록 배치된 순색의 작은 색점으로 화면을 꼼꼼하게 채우는 기법입니다.

다. 쇠라는 다양한 색채의 대비를 통해 사물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통해 보다 생생하게 진동하는 듯한, 보다 설득력 있는 색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쇠라는 기법뿐 아니라 재료에서도 실험적이었습니다. 가령 당시 새로 개발된 안료인 아연에서 추출한 노란색을 사용하여, 햇빛을 표현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쇠라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변색이 시작되어 지금은 갈색으로 보이지만, 당시의 관객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1886년 마지막 인상주의 전시회에 시냐크(Paul Signac)과 피사로(Camille Pissarro) 등의 다른 신인상주의주의자들의 작품과 함께 출품된 쇠라의 <그랑드 자트 섬에서의 일요일>(도판 3)은 그의 대표작이자, 신인상주의의 대표작입니다. 그는 2년 동안 70여점에 이르는 오일 스케치 습작을 한 끝에 이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랑드 자트 섬은 파리 서쪽 센 강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오늘날에는 라 데팡스에 가까운 곳입니다. 쇠라가 이를 그릴 당시에는 파리 시민들이 주말에 휴식을 취하러 가는 한적한 교외 전원 지대였습니다. 쇠라 외에도 수많은 시슬레, 반 고흐, 모네 등 여러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이 그랑드 자트 섬에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도판 4).

그림을 보면 40여명의 인물들이 강가의 초지를 가득 메우고 있고, 각기 화면의 측면이나 정면을 향해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부유한 신사부터 노동자, 가정주부, 유모, 노동자, 매춘부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파리 시민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거리에 서처럼 굉장히 가깝게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과는 전혀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랑드 자트 섬에서의 일요일>에서 화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강과 초지가 구분되고, 인물들이 뒤로 갈수록 급격하게 크기가 줄어들어 깊이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전경에 비해 햇빛이 내리쬐는 후경이 더 어둡거나 흐릿하게 보이지는 않아 이런 깊이감이 감소됩니다. 그가 어떤 의도로 이런 기법을 사용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그의 제작 기법을 통해 이 그림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덧없이 지나가고 즉각적인 것을 추구했던 인상주의자들과 달리, 쇠라는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그랑드 자트의 풍경을 시간을 초월한 기념비처럼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색채와 빛은 캔버스의 테두리까지 꼼꼼하게 적용된 수많은 색점을 통해 끊임없이 진동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이지만, 각각의 인물들이 정지되어 고정된 듯하고, 일상적인 주제를 역사화처럼 거대한 화폭에 담은 교외의 풍경은 관람객들을 압도하는 듯합니다.



도판 4

도판 1

조르주 쇠라, <아스니에르에서 먹는 사람들(Bathers at Asnières)>, 1884, 캔버스에 유채, 201 x 300 cm, 런던 내셔널갤러리.

도판 2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그랑드 자트 섬(The Isle Grande-Jatte)>, 1878, 캔버스에 유채, 개인 소장.

도판 3

슈브렐(Michel Chevreul)의 색상환

도판 4

조르주 쇠라, <그랑드 자트 섬에서의 일요일(A Sunday on La Grande Jatte)>, 1884-1886, 캔버스에 유채, 207.5 x 308.1 cm,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메인 작품).

● 글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천재, 그 이름은 모차르트

글 김수연

KBS 올산라디오 「러브 클래식」 등,
라디오·TV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
로 활동을 하고 있다.

영화<아마데우스>에는 모차르트의 이런 대사가 나온다. “저는 상스러운 놈입니다. 하지만 제 음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상영된 게 1985년, 그러니까 벌써 내년이면 영화<아마데우스>가 세상에 나온 지 30년이 된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런지 이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건 그의 천재성과 함께 경박스런 웃음소리로 대변되는 다소 희화화되고 과장된 모차르트의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로 영화속 캐릭터 때문에 그의 음악마저 가볍다고 말하는 이들도 종종 있다. 하지만 내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의 음악이 권위적이지 않아서이다. 클래식하면 어렵다는 선입견이 다들 있지 않은가. 듣기에 단순한 듯 쉽게 느껴지는 모차르트의 음악. 그렇다고 모차르트의 음악이 깊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놓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그의 천재성을 말해주는 게 아

닐까 싶다. 음악적 영감에 사로잡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곡을 써내려갔던 모차르트. 마치 인간 세계 너머의 그 누군가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기라고 하는 듯 똑딱 작품을 완성하는 그런 천재성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음악을 편하게 들을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것을 천재성이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1756~1791)는 35년의 짧은 생애 동안 600곡이 넘는 작품, 그것도 피아노 소품에서부터 실내악, 협주곡, 교향곡,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의 음악을 멋들어지게 완성해 냈다. 짧은 생애 동안 모차르트가 이렇게 많은 음악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나이 5살 때부터 작곡을 했기 때문이다. 피아노 솜씨가 뛰어났던 5살 위 누나 난델을 보고 자란 덕에 3살의 꼬마 모차르트는 누나를 흉내 내며 피아노 연주하는 걸 좋아했다. 배우지도 않은 바이올린을 척척 연주하는가 하면 5살엔 작곡에까지 손을 댔으니 그야말로 천부적인 재능을 보인 게 아닌가. 그의 첫 작품 미뉴엣 G장조를 들어보자. 5살 꼬마의 반짝이는 호기심이라 할 순수함이 묻어난다. 더구나 몇 달 뒤 작곡한 미뉴엣 F장조에선 첫 곡보다 훨씬 성숙한 작품을 선보이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그의 아버지 레오폴드가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명성과 야망을 접은 채 아들의 음악교육에 매진하게 했다. 모차르트의 연주 여행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은가. 6살 때부터 거의 10년간 이어진 연주 여행이 모차르트를 돈 벌이로 혹사시켰다는 얘기도 있지만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전역을 돌면서 모차르트는 많은 것을 배웠다. 유럽을 풍미했던 뛰어난 음악가의 작품과 연주를 직접 듣고 또 그들과 교류하면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한층 더 넓혀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모차르트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커져가면서 자유에 대한 의지도 키워나갔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는 근대사회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시대라 종교적인 권위에서 벗어나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타고난 천재성이 발현된 이후 모차르트는 음악을 하는 게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강요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작곡과 연주에 너무 매몰돼 살았다. 그래서 반항심이었을까.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콘스탄체와의 결혼을 감행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어린 나이부터 전 유럽을 돌며 여행을 했던 모차르트가 이기에 시대적 변화를 타고 자유를 갈망했다. 아버지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음악을 향한 자유를 꿈꿨다. 모차르트 당대의 음악가들에게는 후원자가 있었다. 그들과 상하관계를 맺고 그들 입맛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야 하는 답답한 분위기가 모차르트에게는 맞지 않았다. 성격상 귀족들의 비위에 맞춰 음악을 하는 게 어려워 늘 갈등을 겪었고 그들이 원하는 틀에 박힌 음악을 하기 싫었다. 그래서 그는 공식적인 후원 없이 자립을 감행한 최초의 작곡가가 됐다.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프리랜서 선언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 길은 쉽지 않았다. 자유와 평등, 박애 등 당시 유행했던 계몽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비밀결사 조직 프리메이슨이 이 시기에 생겨났다. 유럽 대륙 전역에 불고

있는 자유의 흐름에 당시 빈 상류층에 프리메이슨이 많았고 모차르트 역시 프리메이슨의 근대적 정신에 매료돼 회원이 됐다. 그리고는 귀족사회를 위한 음악이 아닌 신흥 중산층을 위한 음악을 만들었다. 귀족계층을 풍자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과 프리메이슨의 모습을 녹인 ‘마술피리’를 연이어 발표했다. 작품에 대한 인기는 좋았지만 왕궁이나 귀족의 대저택에서 주로 공연되어 온 음악을 신흥 중산층이 곧바로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오스트리아와 오스만 제국의 오랜 전쟁으로 전반적인 나라 경제사정도 좋지 못했다. 모차르트의 명성이 있어 적지 않은 돈을 벌기는 했지만 과소비 탓에 늘 쪼들려 살아야 했고 죽기 직전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작곡을 해야만 했다.

짧은 생 동안 많은 명작을 쏟아내느라 쉬 지친 것이었을까. 모차르트는 35살의 너무도 아까운 나이에 류머티즘 열로 생을 달리했다. 너무도 빨리 진 그의 인생이 애처로워서 인지 아니면 그의 음악적인 천재성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 사람들은 아직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역사에는 가정(假定)이란 게 있을 수 없지만 그가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동시대인들에게 그의 천재성이 제대로 평가됐다면 짧은 생이었지만 그의 삶이 조금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짧게 응축된 삶이었기에 그의 음악이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음악 속에 영원히 숨 쉬고 있는 모차르트를 마음에 품으며 그가 남긴 명작들을 한 작품씩 떠올려본다.

공연가이드

PERFORMANCES

제11회 울산예술고 무용단 무용정기공연

공연정보 7. 1(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예술고무용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무용외의 다른 장르와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무용의 다양성을 개발하고 관객과의 호흡을 유도

계변천신설화 IV

공연정보 7. 4(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태화루예술단
입 장 료 전석 15,000원
프로그램 - 환영
- 물이(새로운 세계)
- 맥놀이(화합의 기운)
- 흥소리(울산의 소리)

두비두비 코앤코 음악회

공연정보 7. 9(수) 10:40, 12:40 대공연장
공연주최 코앤코 교육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실제로 접하기 힘든 악기들의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고 즐거운 동요와 동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음

어린이뮤지컬 '알라딘'

공연정보 7. 12(토) 14:00, 16:00
7. 13(일) 14:00, 16:00
대공연장
공연주최 극단예일
입 장 료 V석 40,000원, R석 30,000원,
S석 20,000원
공연개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천일야화 중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모체로 만들 총 3막 7장의 장면 뮤지컬임

구현화 피아노 독주회

공연정보 7. 13(일)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구현화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음악의 대표적인 네시기인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 각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바흐, 베토벤, 리스트, 무진스키의 피아노 곡들로 독주회 프로그램 구성

제39회 남구 구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7. 15(화)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구립교향악단
입 장 료 무료
프로그램 - 오케스트라 연주
- 바리톤 협연
- 합창단 협연
- 소프라노 협연
- 오케스트라 연주

제18회 국악관현악과 함께하는 창작동요발표회

공연정보 7. 19(토) 16: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동요사랑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의 아동문학가와 전국 유명 아동문학가의 좋은 글을 바탕으로 울산의 동요 작곡가 및 전국의 유명 작곡가가 새로이 곡을 붙여 만든 울산창작 동요 30여곡을 울산어린이들을 통해 발표

창작 춤 'Kiss the 춘향 season3'

공연정보 7. 23(수)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김미자무용단
입 장 료 전석 15,000원
공연개요 부패한 과거 사또와 현대의 돈과 권력을 가진 권력자의 모습이 현대와 과거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별, 시련, 재회를 표현함

2014년 아마빌리스 여성중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7. 24(목) 17: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아마빌리스 여성중창단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전례음악을 비롯한 성음악과 다양한 음악을 통하여 여성중창단의 활동을 통해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표현함

제5회 울산심포닉 밴드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7. 25(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심포닉밴드
입 장 료 무료
프로그램 - 루슬란 앤드 루드밀란
- 베버 클라리넷 협주곡
- 드라곤 플라이트
- 댄싱 아마데우스 등

단, 첫번째 춤판

공연정보 7. 26(토)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단(搏) 무용단
입 장 료 무료
프로그램 - 전통춤의 향연
- 태평무
- 살풀이춤
- 국악연주
- 진도북춤 등

공연가이드

PERFORMANCES

제5회 극단 홍강 정기공연 '세익스피어 햄릿'

공연정보 8. 15(금) 19:30
8. 16(토)/ 8. 17(일) 16:00,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극단 홍강
입 장 료 전석 20,000원
공연개요 부친을 잃고 어머니마저 숙부와 결혼해 버린 현실에 괴로워하며 우울증에 빠진 사색적인 한 인간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괴로움과 함께 단순히 가족이나 국가적간을 뛰어 넘어 현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모습을 그려봄

2014 내드름 연희단 정기공연 '울산별곡'

공연정보 8. 20(수) 18:00 소공연장
공연주최 내드림연희단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불리고 있지만 스쳐 지났던, 하지만 역사와 전통이 담긴 아름다운 지역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의 소중함과 친근함을 전통 연희의 몸짓과 소리들로 재구성하여 표현함

제2회 더 스트링스 챔버 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공연정보 8. 23(토)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더스트링스챔버 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프로그램
- 피가로의 결혼
-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4번, 5번 1악장
- 하이든 첼로 협주곡 제1번 1악장
- 하이든 첼로 협주곡 제2번 1악장
-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9번 1악장
-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1악장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공연정보 8. 28(목) 19:30
8. 29(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문수오페라단
입 장 료 30,000원
공연개요 기울어진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게이샤가 된 15살 꽃다운 아가씨 나비부인은 미국의 해군장교 핑커톤의 불장난을 참사랑으로 믿고 부모와 친척, 친구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서 그와의 사랑을 이루어 여자의 행복을 얻고 싶어한다.

제10회 공업탑 청소년예술제

공연정보 8. 16(토) 19:00 야외 공연장
공연주최 공업탑 청소년 문화의집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2014년 청소년의 달 행사로 펼쳐지는 청소년예술제

울산시민 대화합 음악회

공연정보 8. 21(목)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사)21세기 울산공동체운동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소프라노 박연경, 테너 최화진, 반주자 최여진 선생님 재능기부로 출연하여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

2014 청소년 편편 페스티벌

공연정보 8. 23(토) 10:00 야외 공연장
공연주최 공업탑 청소년 문화의집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2014 울산광역시 청소년 문화존 "편편페스티벌"

동행

공연정보 8.31(일) 18:00 소공연장
공연주최 박선영무용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전통춤의 춤사위를 응용하여 한국 창작무용으로 풀어 나가는 춤

제40회 남구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공연정보 8. 19(화)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 구립교향악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8개국의 대표적 인클래식곡을 연주하여 탑승하여 공연을 즐기게 함

제4회 울산콘서트콰이어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8. 22(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콘서트콰이어
입 장 료 전석 5,000원
프로그램
- 봄이오면, 고향의 봄
- 사랑 그리고 사랑 메들리
- 추억의 7080 음악 메들리
- 귀에 익은 뮤지컬 메들리
- 양상בל을 위한 무반주곡
- 피가로의 결혼 피날레
- 아리랑, 앵콜

제15회 (사)한국전통예술진흥회 울산지부 정기공연

공연정보 8. 24(일) 16: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전통예술 진흥회 울산지부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우리음악의 옛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고, 미래에 또 다시 달라질 모습을 생각하여본다.

전시가이드

EXHIBITION

모하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전

전시기간 7. 8(화)~7. 13(일),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모하창작스튜디오 (신정웅)
 전시내용 모하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10여명의 성과전으로 현대사회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인간본질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통하여 입주 작가들의 입체, 평면, 설치 등의 다양한 방법모색 및 표현한 작품 20점 전시

제18회 울산광역시서예대전 심사·회화

전시기간 7. 13(일)~7. 14(월), 2일간
 전시장소 제2,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서예협회 (이종균)
 전시내용 울산서예협회가 제18회 울산광역시서예대전의 작품을 공모하여 작품심사 개최

울산환경미술협회 정기전

전시기간 7. 16(수)~7. 21(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환경미술협 (서경희)
 전시내용 2014년 환경미술협회 울산지회 회원 및 초대작가 50인의 작품 50점 전시

제48회 울산전국사진 촬영대회

전시기간 7. 24(목)~7. 28(월), 5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사진작가협회 (정원섭)
 전시내용 신진작가 발굴 및 사진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제48회 울산전국사진촬영대회 작품을 공모접수하여 금상, 은상, 동상,佳作, 장려, 입선 등으로 구분 심사하여 입상작품 120점 전시

제7회 먹물 향기전

전시기간 7. 8(화)~7. 12(토), 5일간
 전시장소 제2,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협 서예분과 (신정아)
 전시내용 한글서예, 한문서예, 전각 등 다양한 창작 작품을 통하여 서예작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작품 100점 전시

제5회 색 이야기

전시기간 7. 15(화)~7. 20(일),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농소농협 문화센터 (백옥순)
 전시내용 부경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출발하여 현재 농소농협 문화센터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으며, 미술을 통한 정신세계와 건강한 삶을 위한 단체로 구성된 회원 12명의 서양화 작품 50여점 전시

제3회 화실 나드리전

전시기간 7. 23(수)~7. 28(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화실 나드리 (이상민)
 전시내용 화실나드리 회원 16명의 세번째 정기전으로 회원 16명의 구상 및 비구상의 개성적인 작품 40점 전시

제11회 시민과 함께하는 회원작품전

전시기간 7. 30(수)~8. 4(월), 6일간
 전시장소 제2,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교육삼락회 (권대우)
 전시내용 울산시민과 원로 교육자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퇴직 교원 및 시민들의 작품을 3개 부문으로 공모, 접수, 심사하여 입상작품(서예, 회화, 문인화 등) 70점 전시

제18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

전시기간 7. 8(화)~7. 13(일),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경상일보 (배명철)
 전시내용 창간 25주년을 맞이한 경상일보사의 제18회 보도사진전으로 지난 1년 동안 울산지역의 각종 사건사고 현장의 찰나 등 경상일보 지면을 통해 독자와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은 80점의 사진작품 전시

예유희 소통전

전시기간 7. 16(수)~7. 21(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예유희 (김석곤)
 전시내용 예유희 창립전으로 서양화, 서예 등 다양한 창작 작품을 통하여 예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줌

제2회 이은묵 개인전

전시기간 7. 23(수)~7. 28(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개 인 (이은묵)
 전시내용 어려운 현실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아름다운 기억과 희망이 가까이 있음을 그림을 통해 나누고자 수채화 작품 40점 전시

바다문화제 시화전

전시기간 7. 30(수)~8. 4(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문인협회 (추창호)
 전시내용 울산 사진작가 60여명이 참여한 시화 전시회로 '감동의 바다'라는 주제를 구현함으로써 울산시민 및 외지인들에게 바다의 중요성 및 울산의 아름다운 바다를 널리 알려 울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화 60점 전시

전시가이드

EXHIBITION

영 · 호남 구상작가 교류전

전시기간 8. 6(수)~8. 11(월), 6일간
 전시장소 제2,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구상작가회 (이기영)
 전시내용 울산구상작가 20여명과 호남작가 20여명의 연합교류전으로 지역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상회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작품 40점 전시

제18회 울산광역시 서예대전

전시기간 8. 13(수)~8. 18(월),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서예협회 (이종균)
 전시내용 울산서예협회가 제18회 울산광역시서예대전의 작품을 공모, 심사하여 입상자 및 초대작가, 운영위원 작품 300점 전시

제18회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전시기간 8. 20(수)~8. 25(월), 6일간
 전시장소 제1,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사진작가협회 (정원섭)
 전시내용 울산사진작가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사진 공모전으로 순수창작, 기록창작, 응용창작 사진으로 구분 심사하여 대상, 우수상, 특선, 입선의 입상작품 및 초대작가, 추천작가의 사진 작품 총 120점 전시

제4회 예가인 정기전

전시기간 8. 20(수)~8. 25(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예가인 (조미경)
 전시내용 네 번째 정기전으로 자연과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섯 작가 각각의 시선으로 표현한 수채화, 유화 등 회화 작품 35점 전시

제1회 황한선 개인전

전시기간 8. 20(수)~8. 25(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개 인 (황한선)
 전시내용 일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물과 풍경을 유화와 수채화로 표현한 작품 30점 전시

울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전시기간 8. 27(수)~9. 1(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울산광역시청 (관광과)
 전시내용 지역의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2014년 울산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접수, 심사 후 입상작품 20점 전시

김양권 사진전

전시기간 8. 27(수)~9. 1(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개 인 (김양권)
 전시내용 일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물과 풍경을 오랫동안 마음을 담아 촬영한 흑백 사진작품 35점 전시

제10회 울산미협 문인화 분과전

전시기간 8. 27(수)~9. 1(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협 문인화분과 (김환병)
 전시내용 청렴한 선비의 상징이기도 한 매화를 표현하였으며, 문인화의 다양성을 울산 시민에게 선보이는 작품 60점 전시

제11회 울산한마음해석회 회원전

전시기간 8. 30(토)~8. 31(일), 2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울산한마음해석회 (하정배)
 전시내용 바닷돌을 연출하여 전국 수석동호인을 대상으로 전시를 통한 화합 및 교류를 위하여 수석 500점 전시

07_대공연장

08_대공연장 · 야외공연장

07_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08_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01		01		01	· 제11회 울산예술고 무용정기공연 7.1(화) 19:30
02		02		02	야외공연장 · 뒤란 7.2(수) 19:30
03		03		03	
04		04		04	· 계변천신설화4 7.4(금) 19:30
05		05		05	
06		06		06	
07		07		07	야외공연장 · 아트인시네마 7.7(월) 20:00
08		08		08	
09	· 두비두비 코앰코 음악회 7.9(수) 10:40, 12:40	09		09	야외공연장 · 뒤란 7.9(수) 19:30
10		10		10	
11	· 제89회 합창단 정기연주회 '오라토리오 엘리야' 7.11(금) 20:00	11		11	
12	· 어린이 뮤지컬 '알라딘' 7.12(토) 14:00, 16:00	12		12	
13	· 어린이 뮤지컬 '알라딘' 7.13(일) 11:00, 14:00	13		13	· 구현화 피아노 독주회 7.13(일) 17:00
14		14		14	야외공연장 · 아트인시네마 7.14(월) 20:00
15	· 제39회 남구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7.15(화) 19:30	15		15	
16		16	야외공연장 · 제10회 공업탑 청소년 예술제 8.16(토) 19:00	16	야외공연장 · 뒤란 7.16(수) 19:30
17		17		17	· 무용단 기획공연 '우리소리 판타지' 7.17(목) 20:00
18	· 교향악단 제175회 정기연주회 7.18(금) 20:00	18		18	
19		19	· 제40회 남구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8.19(화) 19:30	19	· 제18회 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창작동요발표회 7.19(토) 16:00
20		20	야외공연장 · 뒤란 8.20(수) 19:30	19	야외공연장 · 강남문화예술 페스티벌 7.19(토) 19:30
21		21	· 울산시민 대화합 음악회 8.21(목) 19:30	20	
22		22	울산대공원 · 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시원한여름음악회' 8.22(금) 20:00	21	야외공연장 · 아트인시네마 7.21(월) 20:00
23	· 창작춤 Kiss the 춘향 season3 7.23(수) 19:30	23	· 중국 광저우 발레단 'The Butterfly Lovers' 8.23(토) 19:00	22	· 모닝콘서트 7.22(화) 11:00
24		24		23	야외공연장 · 뒤란 7.23(수) 19:30
25		25		24	· 2014년 아마빌리스 여성중창단 정기연주회 7.24(목) 17:30
26	· 코코몽 블록버스터 뮤지컬 '로보코' 7.26(토) 11:00, 14:00, 16:00	26		25	· 제5회 울산심포닉밴드 정기연주회 7.25(금) 19:30
27	· 코코몽 블록버스터 뮤지컬 '로보코' 7.27(일) 11:00, 14:00	27	· 전통연희 난장 '불광불금' 8.27(수) 19:00	26	· 단, 첫번째 출판 7.26(토) 17:00
28		28		27	
29		29	· 교향악단 제176회 정기연주회 8.29(금) 20:00	28	야외공연장 · 아트인시네마 7.28(월) 20:00
30		30		29	
		31		30	야외공연장 · 뒤란 7.30(수) 19:30
				31	· 동행 8.31(일) 18:00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8월의 공연·전시

Performances & Exhibition

07_ 전시가이드

	1전시장	2전시장	3전시장	4전시장	상설전시장	야외전시장			
01	· 울산 국제환경사진 페스티벌 6.26(목)~7. 6(일) 11일간	· 제7회 먹물 향기전 7. 8(화)~7. 12(토) 5일간	· 제18회 울산광역시서예대전 심사·회호 7.13(일)~7. 14(월) 2일간	· 제18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 7. 8(화)~7. 13(일) 6일간	· 올해의 작가 개인전 - 하반기 합동展 7. 1(일)~7. 30(월) 30일간	· 전국야외조각초대 展Ⅱ부 6. 3(화)~9. 25(목) 115일간			
02									
03									
04									
05									
06									
07	· 모하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전 7. 8(화)~7. 13(일) 6일간						· 제18회 울산광역시서예대전 심사·회호 7.13(일)~7. 14(월) 2일간	· 제5회 색 이야기 7.15(화)~7. 20(일) 6일간	
08									
09									
10									
11									
12									
13	· 빛의 현대 예술展 7.17(목)~8. 10(일) 25일간						· 예술회 소통전 7.16(수)~7. 21(월) 6일간	· 울산환경미술협회 정기전 7.16(수)~7. 21(월) 6일간	· 제48회 울산전국사진 촬영대회 7. 24(목)~7.28(월) 5일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제11회 시민과 함께하는 회원작품전 7.30(수)~8. 4(일) 6일간	· 바다문학제 시화전 7.30(수)~8. 4(일) 6일간							
30									
31									

08_ 전시가이드

	1전시장	2전시장	3전시장	4전시장	상설전시장	야외전시장			
01	· 빛의 현대 예술展 7.17(목)~8. 10(일) 25일간	· 제11회 시민과 함께하는 회원작품전 7.30(수)~8. 4(월) 6일간		· 바다문학제 시화전 7.30(수)~8. 4(월) 6일간	· 올해의 작가 개인전 - 김재옥展 8. 1(금)~8. 30(토) 30일간	· 전국야외조각초대 展Ⅱ부 6. 3(화)~9. 25(목) 115일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 제18회 울산광역시 서예대전 8.13(수)~8. 18(월) 6일간	· 영·호남 구상작가 교류전 8. 6(수)~8. 11(월) 6일간							
14									
15									
16									
17									
18									
19									
20	· 제18회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8.20(수)~8. 25(월) 6일간						· 제4회 예가인 정기전 8.20(수)~8. 25(월) 6일간	· 제1회 황한선 개인전 8.20(수)~8. 25(월) 6일간	· 제18회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8.20(수)~8. 25(월) 6일간
21									
22									
23									
24									
25									
26									
27	· 울산관광 기념품 공모전 8.27(수)~9. 1(월) 6일간			· 김양권 사진전 8.27(수)~9. 1(월) 6일간			· 제10회 울산미협 문인화분과전 8.27(수)~9. 1(월) 6일간		
28									
29									
30									
31									

당신의 불링블링한 ART스타일 완성!

Always, with you

항상 당신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소박한 여유
가슴 속에서 퍼져 나오는 감동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함께 합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매달 마지막 수요일)

— 공연할인

뒤란(실내공연) 및 예술단 공연 50% 할인,
대관공연 할인 권고

— 전시장 야간개장(오후 10시까지)

갤러리 ‘섬’, 제1전시장(회관기획전시)
대관전시 권고

문예회원에 가입하면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이 솔~솔~

회원의 종류

가입 기간	청소년회원	일반회원	가족회원 (4인기준)	단체회원 (10인기준)
1년	1만원	2만원	4만원	10만원 (1인추가시 1만원)
3년	2만5천원	5만원	10만원	25만원 (1인추가시 2만5천원)
5년	4만원	8만원	16만원	40만원 (1인추가시 4만원)
10년	7만5천원	15만원	30만원	75만원 (1인추가시 7만5천원)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셔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 인터넷 가입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울산문화예술회관
농 협 317-8245-8245-41 / 울산문화예술회관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공연 30% 할인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단체 1매)
-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초대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단체 1매)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이내 할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등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초 청 기 획 전 시

빛의 현대 예술전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

2014. 7. 17(목)~8. 10(일) 25일간